

뚝섬 자벌레에 한강홍보 전시관... 과거·현재·미래 담는다

서울 한강사업본부, 2023년 조성
관광객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아트 결합 문화재 모형 설치



뚝섬 자벌레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한강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한강역사홍보·전시(박물관)관을 만든다.

1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뚝섬 자벌레에 한강홍보전시관을 조성키로 했다.

전시관 설립으로 시는 한강의 역사, 발전과정, 미래상 등을 홍보해 한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민, 관광객이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형태의 전시를 열고, 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충해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공간(자벌레 1층 서울생각

마루 및 통로)을 최대한 활용, 방문자 동선을 한강공원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세부 공간별 조성계획안에 의하면, 전시관은 총 2관으로 구성된다.

자벌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2010년 문을 연 뚝섬의 전망문화복합체다. 자나방의 애벌레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자벌레라고 불린다.

뚝섬유원지에서 홍보전시관으로 진입하는 공간에 들어서는 1관엔 '한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디지털미디어 전시와 한강 관련 문화재·유물(황포돛배, 썰매 등) 모형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통로 프로젝트나 터널 천장 LED로 한강의 역사와 현재 한강의 정보를 통로 이동 시간에 맞춰 빠르게 전달하

는 콘텐츠를 구상 중이다. 또 미디어아트와 결합된 한강 관련 문화재 모형 등을 설치해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전시가 아닌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뚝섬 자벌레 실내로 진입하는 공간에 마련되는 2관은 '한강 이야기'를 테마로 한다. 시대별 상황에 맞는 콘셉트와 아이템, 직접 체험 가능한 동적전시 공간이 준비된다. 이외에 미디어테이블과 프로젝터 등을 설치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내년 1~8월 홍보전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설계에 따라 세부 공간 조성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듬해인 2023년 시는 홍보전시관 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1개 한강공원의 유형과 특성, 자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여건 분석 결과 안전성, 방문인원, 이용 편의성

에서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뚝섬 자벌레를 활용한 홍보전시관 조성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시는 시민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한강공원 내 한강 역사·생태 거점(허브) 역할을 할 홍보·전시관을 설립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국기업평가원을 통해 한강역사 생태홍보전시관(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홍보·전시관 사업후보지 발굴, 설립 타당성, 홍보·전시관 개념 및 기본(안) 구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한강은 서울과 한반도의 중요한 거점이나 한강의 역사적·생태적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연구·교육 및 홍보하는 상설 시설이 부재해 한강의 역사문화자원을 일상에 향유하는 문화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강역사홍보·전시관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민간 공사장·건축물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서울시, AI·IoT·블록체인 등 활용
비용·인력 줄이고 위험요소 사전감지
내년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서울시는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과 건축물은 의무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이에 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기술로 대규모 비용·인력 투입 없이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방식을 선보이기로 했다.

시는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해 위험요소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목표다.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엔 AI가 공

사장 CCTV를 분석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경보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내년 100여곳에 시범 적용된다.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엔 IoT센서와 블록체인이 기울기, 균열 같은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 알람을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이 연말에 시범 도입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구조물 상태, 실시간 데이터를 언제든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시는 올 12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안전 등급이 낮은 재난 위험시설(D·E급),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 옹벽·인공비탈면 같은 주택사면 등 약 120개(동)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기관이 확보한 민간 공사장,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전파되는 시간이 기존 5~10분에서 30초 이내로 대폭 단축돼 초동대처가 빨라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건축 노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복잡한 도심지 내의 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4차산업 시대의 다양한 혁신 기술을 건축행정에 접목해 민간 공사장·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추석맞이 문화프로그램 다채

유튜브 문학, 돈의문박물관 이벤트 등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9월 17일부터 '문화로 토타톡' 유튜브에서 '문학과 함께하는 추석'을 주제로 시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한다. '작가와와의 만남' 8편과 '문학 그림을 만나다' 3편 등 총 11편의 콘텐츠가 준비됐다.

작가와와의 만남에서는 신달자, 정호승 시인이 출연해 남산골 한옥마을과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배경으로 작가가 직접 본인의 작품을 낭송,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한다.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인 돈의



남산골한옥마을을 추석 세 넷 이벤트. /서울시

문박물관마을은 이달 18~22일 추석특별 행사와 시민참여 이벤트를 연다. 오는 18일에는 '한가위특집 돈의문상회 비대면 투어'가 마을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돈의문상회에서 판매하는 체험·공예 상품을 소개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현정 기자

성산대교 남단~선유교 자전거도로 개통

서울시, 767m 구간에 쉼터도 조성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양화한강공원 성산대교 남단~선유교 구간 자전거도로의 구조 개선 공사를 마치고 13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개통하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는 폭 6m에 길이 767m로, 한강변을 따라 만들어져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탁 트인 시야와 쾌

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구간 내 편의점(양화3호점) 앞에 자전거 이용자가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식수대, 벤치, 자전거 거치대 등이 갖춰진 자전거쉼터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개선을



개선도로(강변 데크길).

/서울시

지속 추진 중"이라며 "구조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2 | 해질 18:43

9월 13일 (월) 음력 : 8월 7일

수도권 날씨 21~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7/29, 동두천 18/29, 가평 16/29, 파주 18/29, 서울 21/30, 양평 18/28, 수원 21/29, 용인 21/29, 평택 19/29, 백령도 20/26, 인천 22/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한은 "미국, 코로나19 델타변이에 소비·고용 부진"
▲ 페루 반군 '빛나는 길' 창설 구스만, 수감 중 86세로 사망 /사진 뉴스스

▲ 美메릴랜드 경찰관, 아파트서 복제총 겨누는 20대남 사살
▲ 시리아, 국내 통과 레바논행 이집트 송유관 지분 획득



▲ IAEA 사무총장 테헤란 방문...이란 부통령과 회담
▲ 교황 "통제안된 빈곤·무지, 근본주의 폭력 부추겨...교육으로 맞서야" /사진 뉴스스